

2023-11-20 (2023-42호)

11월 20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글로벌 달러 방향과 수급 노이즈

서울, 11월2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지속 여부를 살피면서 역내 수급에 따른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85~1,315원이다.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의 동반 하락에 달러/원도 급하게 되밀린 결과 환율의 단기 주거래 레인지는 확연히 낮아졌다.

고물가가 자극한 고금리, 이로 인해 촉발된 강달러 현상이 최근 디스인플레이션을 지지하는 물가지표 결과에 크게 꺾이면서 달러/원의 무게중심도 아래 쪽으로 기울어졌다.

또한, 중국을 비롯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그간 시장심리를 짓눌렀던 일련의 리스크 국면이 최악은 넘었다는 긍정적인 해석 속 위험자산과 통화들에 대한 심리가 대체로 개선되는 분위기다.

강달러와 약위안 모멘텀이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원화에 관한 시장 반응은 나름 적극적이었다. 전주말까지 달러/원 월간 낙폭은 50원을 넘어서며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 중이다.

다만, 환율의 단기 박스권이 하향 조정된 것 맞지만 아직 하락 추세를 염두에 두기는 조심스럽다는 인식 속 이번 주 환율은 달러 약세 지속 여부를 눈여겨 보며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실필 것으로 예상된다.

주 초에는 삼성전자 분기배당에 따른 외인 주식 역송금 수급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외인에게 지급될 분기 배당 몫은 약 1.36조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챙겨볼 대외 경제지표로는 미국 10월 컨퍼런스보드경기선행지수,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10월 내구재 수주 등이 있고,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 결정도 예정돼있다.

로이터 조사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 1년물 LPR은 3.45%로, 5년물 LPR은 4.20%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책회의록도 공개된다.

국내 일정으로는 20일자 수출입 및 무역수지 잠정치,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 등이 예정돼있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1월20일(월)

- ⊙ 금융감독원: 2023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12:0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15:00)

11월21일(화)

- ⊙ 관세청: 11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2023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 (06:00)
- ⊙ 한국은행: 2023년 3/4분기 가계신용(잠정) (12:00)

11월22일(수)

- ⊙ 한국은행: 2023년 3/4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 (12:00)
- ⊙ KDI: KDI FOCUS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12:00)
- ⊙ 기획재정부: 2023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2:00)

11월23일(목)

- ⊙ 한국은행: 총재 BIS사무총장 대담 (10:00)
- ⊙ 통계청: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2:00)
- ⊙ 기획재정부: 이차전지·스마트조선 현장 간담회 개최 (16:00)
- ⊙ 한국은행: 2023년 12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 (17:00)
- ⊙ 기획재정부: 2023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1월 발행실적

11월24일(금)

- ⊙ 특이 일정 없음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1월20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1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Y	11월		3.45%
11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Y	11월		4.20%
11월21일	22:30	미국	전미활동지수	10월		0.02
11월22일	00:00	미국	기존주택판매	10월	3.90M	3.96M
11월22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1월17일주간		170.5
11월22일	22:30	미국	내구재주문	10월	-3.2%	4.6%
11월22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1월18일주간	226k	231k
11월23일	00: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11월	-17.6	-17.9
11월23일	00: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11월	60.6	60.4
11월23일	18: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잠정치	11월	43.4	43.1
11월23일	18:00	유로존	HCOB 서비스업 PMI 잠정치	11월	48.1	47.8
11월24일	08:30	일본	CPI MM NSA	10월		0.3%
11월24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Flash SA	11월		48.7
11월24일	23: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11월	49.8	50.0
11월24일	23: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11월	50.3	50.6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1월20일 (월)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폭스비즈니스뉴스 출연 (21일 오전 2시)

11월21일 (화)

- ⊙ 호주 중앙은행, 11월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공개 (오전 9시30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독일 재무부 주최 행사서 연설 (22일 오전 1시)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0월31일-11월1일 회의 회의록 공개 (22일 오전 4시)

11월23일 (목)

- ⊙ 휴장국가: 미국, 일본

11월24일 (금)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 요아힘 나겔 분데스뱅크 총재, 분데스뱅크 주최 행사 참석 (오후 6시)

▶ 주간 세계 5대 이슈

⊙ 美 연말 쇼핑시즌

24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연말 쇼핑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소비자 중심의 미국 경제가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올해 치솟는 금리와 여전히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속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게 된다.

10월 데이터에 따르면 이미 미국의 소매 판매는 감소해 수요 둔화를 시사했지만, 감소폭은 예상보다 작았다.

21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엄청난 주가 상승으로 주가지수 상승을 이끈 7대 메가캡 기업의 마지막 실적 발표이다.

⊙ 연착륙 VS 경착륙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것인지, 또는 경착륙할 것인지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유로존이 기술적 경기침체를 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영국은 침체의 시작을 막 피했다.

전 세계적으로 발표될 11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투자자들이 경기침체 리스크와 금리 인하 시작 시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로존 PMI는 이미 50을 밑돌아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이며 미국의 10월 제조업 PMI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핍코는 1년 내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다.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하 가능성은 트레이더들이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이 완화 모드로 전환할 만큼 경제 성장이 빠르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둔화되고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면 연착륙에 대한 기대는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

⊙ 英 예산안

리시 수낙 총리가 내무장관을 해임하고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를 다시 정부로 복귀시키는 한편 다른 고위직들을 교체하는 등 영국 정계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레제미 헌트 재무장관은 22일 가을 예산안 발표를 통해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성장률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분석가들은 부진한 경제와 높은 부채에 시달리는 정부가 대규모 투자 공약은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트 장관은 유권자와 기업을 위해 세금을 인하해, 야당인 노동당이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놀란 많은 보수당 의원들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기 차입 전망

치를 하향 조정해 일시적으로 영국 국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넷웨스트는 2024~2025년 영국이 현 회계연도보다 10%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영국 국채시장 공급 과잉에 대한 장기적인 우려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엔 약세

일본은행이 점점 초완화 정책 종료를 시사하고 연준이 긴축을 끝냈다는 투자자의 확신이 커지고 있지만 엔 약세는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있다.

지난주 초 152엔 직전까지 상승했던 달러/엔은 미국 인플레이 지표 둔화로 뒷걸음질 쳤지만, 하루 만에 다시 151엔대로 올라섰다. 지난 3일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환율 하락이 주말 동안만 지속된 것을 본 트레이더에게는 데자뷰가 아닐 수 없다.

미-일 금리차 확대는 엔에 좋은 징조는 아니지만, 정책 방향의 변화는 적어도 시장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지 않은 한 엔 약세는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요인이기 때문에 기시다 내각에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이는 일본의 개입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음을 의미한다.

⊙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

아르헨티나의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좌파 페론주의 경제수장인 세르히오 마사 후보와 자유주의 성향의 아웃사이드어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초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자국에 크게 다른 두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밀레이 후보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인플레이션이 140% 이상 치솟으며 경기침체에 직면한 자국에 충격 요법을 내세우고 있고, 실용주의자인 마사 후보는 악화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정부와 점진적인 변화를 약속했다.

또한 이집트,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가 몇 달 안에 주요 투표를 앞두고 있는 등 신흥 시장에서는 선거로 인한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기재부 국금국, 국내은행 5곳과 외환시장 제도 논의 이어가

서울, 11월16일 (로이터) -

내년 대대적인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 예정된 가운데 지난주 외환제도와 인프라 정비 관련 방안을 발표한 외환당국은 이번주 들어서도 시장참가자들과 접점을 늘리며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신중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이차웅 국제금융과장, 유창연 외화자금시장 과장 등 일선의 실무진들은 15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은행 외환담당자와 회의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외환시장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내은행 인력 문제, 외국 금융기관(RFI) 업무대행기관의 수행 업무 등을 비롯해 달라지는 시장 구조에 따른 시장 변화 등 기존에 논의됐던 사안들에 대해 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은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시장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새로운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개최한 당국은 시장의 요청을 수시로 폭넓게 듣고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예나 기자; 편집 문운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 - 中, 지방 정부에 민관 협력 프로젝트 익스포저 축소 지시 - 소식통들

베이징, 11월15일 (로이터) -

중국은 지방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지방 부채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민관 프로젝트에 대해 허용됐던 예산 지출 한도 10%를 폐지하고 심사제로 전환했다.

정통한 소식통 두 명에 따르면 이러한 지침은 지난달 지방 정부, 정책은행 및 국영은행에 배포된 문서에 언급된 것으로, 이전에는 보도된 바가 없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